2025년 1호

미국(뉴욕) 콘텐츠 특화보고서

스트리밍(OTT) 시대를 맞이한 미국 지상파TV의 패러다임 전환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미국(뉴욕) 콘텐츠 특화보고서

스트리밍(OTT) 시대를 맞이한 미국 지상파 TV 의 패러다임 전환

2025 년 1 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Ⅰ. 미국 지상파TV 환경의 변화** 1. 방송 규제 철폐 요구 및 대응 2. TV 시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3.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의 변화 4. 지상파TV 시청시간의 점유율 하락	
	Ⅱ. NAB의 "Delete, Delete, Delete" 개혁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2. 비판적 입장 3. FCC의 대응	
	Ⅲ. ATSC 1.0에서 ATSC 3.0으로 1. ATSC 2. ATSC 3.0 기반 서비스 3. ATSC 3.0의 2030년 전환에 대한 전망	
	Ⅳ. 저전력TV, 무료방송과 결별 선언 1. 저전력 방송국의 역사적 전환 2. HC2의 핵심 제안 내용 3. 문제점 4. 싱클레어와 ATSC의 반대	
	Ⅴ. 지상파TV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 승리없이 생존할 수 없다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2. 리니어와 CTV의 융합 3. 소유 제한 완화에 따른 M&A 증가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5.10.28.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콘텐츠와 세계로 미래로

스트리밍(OTT) 시대를 맞이한 미국 지상파TV의 패러다임 전환

스트리밍(OTT)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상파TV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상파의 시청시간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고,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합해도 스트리밍 점유율보다 낮는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미국방송협회(NAB)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규제 철폐와 새로운 전송방식인 ATSC 3.0(NextGenTV)을 2030년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Delete, Delete, Delete"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9월 2일 FCC가 ATSC 3.0 전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최근 무효 판결된 Top 4 TV 방송국 복수 소유 금지 규정 등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사항으로 진행 경과와 쟁점들을 정리하고, 전망을 정리해 봤다.

I. 미국 지상파TV 환경의 변화

순서

1. 방송규제 철폐 요구 및 대응
2. TV 시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3.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의 변화
4. 지상파TV 시청시간의 점유율 하락

1 방송 규제 철폐 요구 및 대응

- 미국방송협회(NAB)는 더 이상 방송이 '있으니까 규제한다'는 식(Mount Everest Regulation)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기존의 대대적 규제는 정책 실패라는 입장임
- 스트리밍 플랫폼은 소유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 반면, 전통 방송사만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방송·라디오 소유 제한 등은 방송산업의 생존과 활성화에 가장 치명적인 규제라고 인식하면서 신속한 정책 변화 촉구하고 있음
- 소유 제한, 경쟁 규제 완화 논의는 방송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미디어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 쟁점으로 부상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임

2 TV 시청 환경의 변화 대한 대응

- 트리플리프트(TripleLift)에서 발간한 〈TV 100 년〉 보고서[1]는 "앞으로 5~10 년 동안의 핵심 화두는 TV 가 결국 유튜브나 피콕(NBC 유버설 OTT) 처럼 변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음. TV 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영상 라이브러리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브랜드가 고른 프로그램을 편하게 감상하는 방식으로 남을지는 TV 의 생존을 건 문제라고 설명함
- 미국은 지상파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지만 2020 년 32%에서 올해는 19%로 감소함
- 미국 방송사들이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FCC 에 한 기업이 전국 TV 가구의 39%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TV 방송국 소유를 금지하는 규칙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양방향 통신과 UHD 방송을 할 수 없는 ATSC 1.0 방송을 중단하고 두 기능이 가능한 ATSC 3.0 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음. NAB 는 2025 년 8 월 4 일 FCC 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도 85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전국 방송 소유 한도 규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2]
- 반면,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전체 가구의 100%에 도달할 수 있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3]
- 실제로 ATSC 3.0 의 전환의 불확실, 광고 시장의 구조 변화 등으로 보통 현금흐름의 배수로 평가하는 방송사의 가치[4]도 하락하여 1 년간 세전 영업이익의 8 배 정도로 하락함(2010 년 후반이 10~11 배)[5]
- 심지어, 2025 년 6 월, 앨런 미디어 그룹(Allen Media Group, AMG)은 미국 내 자체 소유·운영 중인 21 개 지역의 ABC, NBC, CBS, FOX 계열의 28 개 방송국을 매각 절차에 돌입함[6]

3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의 변화

- 소유제한 완화
  - FCC 는 1996 년부터 방송사 소유 규정을 점차 완화하고 있음. 현재 한 방송그룹의 '전국 소유 한도(National audience reach cap)'는 39%임. 45%까지 상향된 적도 있음
  - Nexstar 의 경우 방송사 소유 제한 폐지 시 미진출 시장을 추가로 M&A 하여 기존 시장 내 네트워크 계열 방송 추가 인수 등 대규모 사업 확장하려고 함. 방송 시청 점유율이 2020 년 40%에서 2024 년 47%로 증가하여 시청률과 연동된 재송신(유료 채널 내 방송 송출) 수수료가 정산될 경우, 업계 전체 유통 수익이 44%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발표함[7]

1)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0df3ea739725c04ca27d651/t/67feb6d831120e0974bbc83b/1744746211137/US+100_Years_of_TV_v5c.pdf
2) https://www.tvtechnology.com/news/nab-urges-fcc-to-eliminate-all-ownership-caps
3) https://www.tvtechnology.com/news/broadcasters-urge-fcc-to-hit-the-delete-button-on-antiquated-regs
4) TV 방송국 가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미래 수익 할인법"을 병행하며, 네트워크 제휴·시청률·수익구조 등 다층적 변수를 입체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된다. https://hs-media.com/television-station-valuation-and-appraisal/
5) https://tvnewscheck.com/business/article/how-much-is-a-tv-station-worth/
6) https://www.cnbc.com/2025/06/02/byron-allen-broadcast-tv-stations-sale.html
7) https://www.tvtechnology.com/news/nexstar-pitches-reach-m-and-a-deregulation-and-nextgen-tv-opportunities-to-investors

- FCC 는 소유 상한선에 대해 네트워크가 소유한 방송국(O&O, owned-and-operated station)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는 '이중구조(two-tier)'를 검토했는데, NBC 는 법적 근거가 없고, 차별적용이 불합리하고, 로컬리즘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함[8)]

Top 4 TV 방송국 복수 소유 금지 규정 무효 판결[9)]

- 미국 8 순회 연방항소법원이 "Top 4 TV 방송국 복수 소유 금지 규정(Top-Four Station Ownership Rule)"을 전면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림
- 이 규정은 한 방송그룹이 한 지역(TV DMA) 내 시청률 기준 4 위 이내 방송국 중 2 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1996 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 4 년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개정되고 있음
- 법원은 FCC 가 이 규정의 근거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며, 디지털 플랫폼 등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실제 경쟁 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자료에 의존해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효력 상실(규정 무효화)을 명령함
- 향후 단일 방송그룹의 지역내 2 개 이상 '톱 4' TV 소유가 가능해지고, 대형 방송그룹은 적극적 인수합병(M&A), 스테이션 교환, 네트워크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음

방송사 매각 및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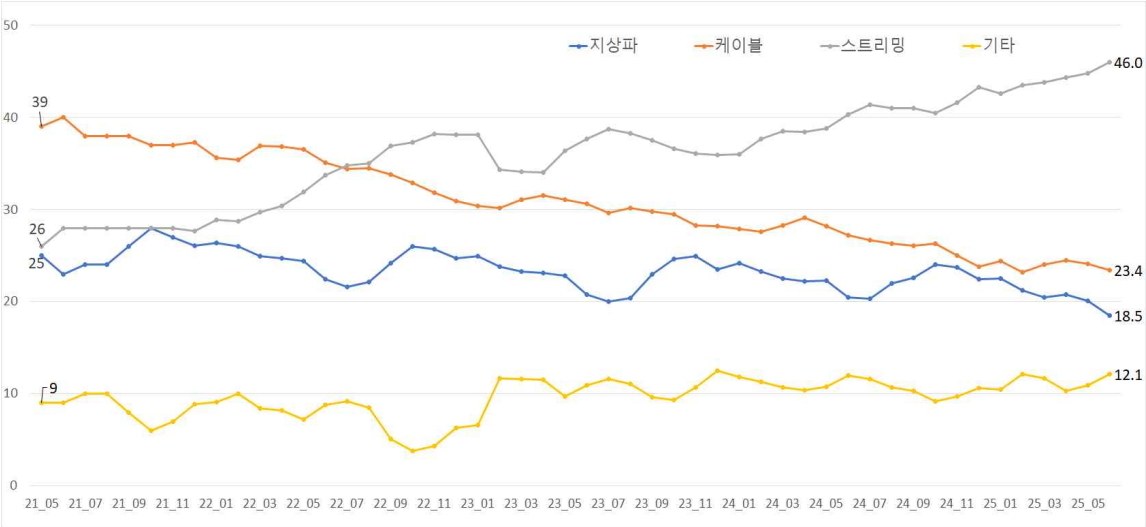
- 2025 년에는 미국 지역 방송국 소유주들이 매각 또는 전략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남
-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인수에도 도전했던 앨런 미디어 그룹이 2025 년 6 월, 미국 내 자체 소유·운영 중인 21 개 지역의 ABC, NBC, CBS, FOX 계열의 28 개 방송국을 매각 절차에 돌입함[10)]
- 매각 및 구조조정의 배경에 첫째, 부채부담으로 방송국 운영사들이 금리 인상, 재무적 압박, 광고·재송신 수익 둔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둘째, 산업 환경 변화로 스트리밍 및 디지털 전환 가속, 광고주 이탈, 소규모(중소) 방송국 가치 하락 등으로 전통적인 방송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 셋째,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흐름으로 AMG, Sinclair, Cox Media Group 등 주요 방송사들도 자산의 일부 혹은 전체 매각을 모색하고 있음
- 향후 매각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대형 방송사 혹은 신규 디지털 미디어·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집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화된 방송 자산에서 벗어나 FAST, OTT 등 신사업에 집중하거나, IP, AI, 데이터 기반 광고 등 성장 분야에 역량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단기적으로는 부채 상환 및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익원 모색이 방송사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임[11)]

8) https://thedesk.net/2025/08/nbc-opposes-fcc-rule-two-tier-ownership/
9) https://www.tvtechnology.com/news/eighth-circuit-vacates-fccs-top-four-station- ownership-rule
10) https://www.cnbc.com/2025/06/02/byron-allen-broadcast-tv-stations-sale.html
11) https://www.thewrap.com/local-tv-station-owners-exploring-sales-analysis/

4 지상파TV 시청시간의 점유율 하락

닐슨의 가우지(The Gauge)[12] 플랫폼별 시청시간 기준 점유율 조사

- 닐슨이 스트리밍(OTT, FAST 등)이 주요한 영상 시청 플랫폼으로 되면서 2021 년 5 월부터 플랫폼별로 시청시간 점유율을 조사하기 시작함
- 가우지에 따르면, 2025 년 6 월 지상파 방송의 시청시간 점유율은 2021 년 5 월 25%에서 18.5%(7 월은 18.4%로 하락)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이자 20% 아래로 처음 내려감
- 유료 TV 도 39%에서 23.4%(7 월은 22.2%로 하락)로 크게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점유율은 26%에서 46.0%(7 월은 47.3%로 상승)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그림 1| 미국 방송 플랫폼별 시청시간 점유율 현황

출처 : 닐슨 The Gauge 자료 종합

12) https://www.nielsen.com/data-center/the-gauge/

Ⅱ. NAB의 "Delete, Delete, Delete" 개혁 추진 현황

순서

1. 추진경과
2. 비판적 입장
3. FCC의 대응

1 추진 경과

2025.2.26. NAB 가 FCC 에 규제폐지 요구서(Delete, Delete, Delete) 제출

- 핵심 내용은 ATSC 1.0 방송 종료 일정 설정(55 개 주요 시장은 2028 년 2 월, 나머지는 2030 년 2 월), DTV 튜너 규칙 업데이트(NextGenTV 수신 보장), 한 방송사의 전국 TV 가구 소유 비율 39% 철폐, MVPD 전송 규칙 업데이트, '실질적 유사 (Substantially Similar)' 요건 즉시 폐지, 자발적 호스팅 협정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임

핵심제안 내용	세부 사항 및 근거
1. ATSC 1.0 방송 종료 일정 설정 (의무 전환)	- Phase 1 : 상위 55 개 시장(미국 인구 약 70% 커버) 방송국은 2028 년 2 월 특정일 ATSC 1.0 방송을 종료하고, ATSC 3.0 으로 완전 전환 - Phase 2 : 나머지 시장은 2030 년 2 월까지 또는 그 이전에 ATSC 1.0 방송 종료 및 3.0 전환 완료 - 예외/유예 : 소규모 방송국, 특히 비영리 교육 방송국에 대해서는 필요시 유예 조치 또는 후발 전환 옵션 제공 가능성 시사, 저전력 방송국 및 TV 중계소는 전환 의무 면제 제안 - 근거 : 현재의 자발적 전환 방식은 한계 도달(시장 커버리지 정체, 스펙트럼 제약 등). 업계 전반의 조정된 전환 필요. 명확한 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방송사, 제조사, MVPD, 소비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투자 촉진
2. DTV 튜너 규칙 업데이트 (NextGen TV 수신 보장)	- FCC 규칙 15.117 개정 : TV 수신기 튜너 요건에 ATSC 3.0 포함 의무화(기존 ATSC 3.0 튜너 법제 조항 삭제) - 시행 시기 : 가능한 빨리, 늦어도 Paase 1 전환 완료 시점까지 시행 - ATSC 1.0 튜너 : 모든 방송사가 1.0 송출을 중단하는 시점 이후에는 1.0 튜너 탑재 의무 제거 지원 - '현저성(Prominence)' 요구 : AI-Channel Receive At(ACRA)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TV 인터페이스에서 무료 OTA 방송 채널 및 관련 설정을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요구(예. 리모컨 버튼, 메뉴 배치 등) - 근거 : 기술 표준 변화에 따른 규칙 현대화 필요. 소비자가 새로 구매하는 TV 에서 방송 수신 가능 여부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 유료 서비스 대비 무료 공익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차별 방지
3. MVPD 전송 규칙 업데이트	- ATSC 3.0 전환에 따라 필요한 MVPD 전송 규칙 개정 검토 요청 - 논의 필요 사항 : '양호한 품질 신호(Good Quality Signal)' 기준 재정립(ATSC 3.0 ModCod 다양성 고려). 물질적 저하(Material Degradation) 기준, 기타 MVPD 가 제기한 기술적 문제(비용, 장비 호환성 등) 관련 규칙 검토 필요 가능성 - 근거 : 기존 MVPD 전송 관계 유지 목표. 기술 전환에 따른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규칙 명확화 필요. SCTE 표준 및 ATSC 권장 지침 개발 중이나, 규제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음

핵심제안 내용	세부 사항 및 근거
4. '실질적 유사(Substantially Similar)' 요건 즉시 폐지	- ATSC 3.0 과 ATSC 1.0 동시 방송시 프로그램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 즉시 폐지 요청(2027 년 7 월 일몰 예정). 단, 동시 방송 의무 자체 폐지 아 - 근거 : 해당 요건은 전환 초기 시청자 보호 목적이었으나 현재 불필요. 오히려 ATSC 3.0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및 실험을 저해하여 혁신과 소비자 채택을 방해. 시장 논리에 따라 인기 프로그램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제공될 것
5. 자발적 호스팅 협정 관련 규정 명확화/업데이트	- 95% 커버리지 요건 재검토 : ATSC 3.0 신청 신속 처리를 위한 '95% 인구 커버리지' 요건 완화 요청. 현재 이 요건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 중소형 시장/방송사의 전환에 장애가 됨. - 멀티캐스트 스트림 처리 명확화 :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대해 95% 커버리지 요건을 신속 처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FCC 방침 재확인 및 실제 적용 요구 - 근거 : 현 규정이 불필요하게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소 방송사에게 부담. 규제 장애물 제거하여 신속한 전환 촉진 필요
6. 기타 고려 사항	- 인코딩 규칙 : A3SA 인코딩 규칙(시간 이동, 복사 제한 없음 등)을 FCC 규칙(Part 73)에 반영하거나 명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 개인 정보 보호 : ATSC 3.0 관련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불필요. 기존 연방/주 법률 적용 및 타 서비스(스트리밍, 케이블 등)와의 규제 형평성 유지 주장 - 접근성 : 현행 접근성 규칙(자막, 음성 해설)은 유효하며, ATSC 3.0 전환으로 인해 수정될 필요는 없음

| 표 1 | NAB 청원 주요 내용

출처 : ATSC 3.0 글로벌 확산과 DTV 방송 종료(전성호, 임중곤, KOBA DAILY NEWS, 2025.5.30.)

2025.4.15. FCC, 공개 의견 수렴 발표

- 의견 수렴은 ATSC 3.0 의 전국적 확산, 방송 서비스 혁신, 무료 공공 서비스의 지속 등 미국 방송환경 변화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임
- ATSC 3.0 시장 장벽: 소비자 인식 부족, 기기 접근성, 비용, 관련 규제 등 시장의 실제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 방송사 전환 유연성 확대: MPEG-4 등 신규 압축방식 허용, VHF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와 전력 증가 조치 등 과도기적 방안이 있는지?
- 디지털 권리 관리(DRM) 문제: ATSC 3.0 신호에 암호화 적용 시 소비자는 정당하게 구입한 기기로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무료 지상파'라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방송사 권리 보호와 소비자 시청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 임시 전환용 채널 허용 여부: 이전에는 '공백 채널' 임시 사용이 불허됐으나, 최근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성 허용 필요성 대두됨
- 무료 서비스 기준: 향후 NextGenTV 에서도 지상파의 "무료 서비스" 제공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명문화해야 할지? 등[13)]

13) https://www.tvtechnology.com/news/fcc-seeks-public-comments-on-nab-nextgen-tv-proposals

2025.4.22. 방송사들, FCC 에 '낡은 규제 삭제' 강력 촉구

- FCC 는 방송업계 대상으로 현행 방송규제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
- 2025 년 4 월 기준 910 건 이상의 다양한 방송사·단체의 광범위한 의견서 및 성명서 접수
- NAB : ATSC 3.0 전환, ATSC 1.0 완전 종료, EAS(긴급경보시스템) 규정 간소화, 아동·EEO(공평 채용 기회)·기타 각종 보고 및 서류 의무 폐지 촉구
- 넷스타(Nexstar) : 소유 제한이 케이블, 인터넷 등 빅테크와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로컬 뉴스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소유 제한 때문에 위협받고 있음
- 그레이 미디어(Gray Media) : 아동 프로그램, 외국 후원 ID, 지역 이슈 보고 등 각종 "비효율적 의무" 폐지 주장
- 싱클레어 : 지역·전국 소유 제한 폐지 및 ATSC 3.0 전환 가속화 주장
- 미션 방송(Mission Broadcasting): 뉴욕 WPIX-TV 등 각 지역 주요 방송국 관리진의 실명 편지 다수 제출
- PBS : 교육방송 대상의 "비내용(Non-content) 규제" 완화 요청
- 방송기술 엔지니어 협회(SBE) : FM 라디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간섭·기술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 지적[14)]

2025.5.3. 방송사들이 FCC 에 주파수 보호 촉구

- 북미주파수연합(North American Spectrum Alliance)[15)]은 FCC 에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스펙트럼의 추가 재분배에 강력히 반대하고, 주파수 자원 보호를 촉구함
- 북미 지역에서 무선 스펙트럼 수요 급증에도 불구, 방송·미디어 제작을 위한 필수 대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버라이어티, 테마파크, 뉴스, 스포츠,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산업도 피해를 입고 있음. 방송·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존속과 공공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재분배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16)]

2025.6.27. 6 개의 산업 그룹, NAB 주장 반대 표명[17)]

- 미국 내 전자, 케이블, LPTV 등 여섯 개 업계 단체가 FCC 와의 회의에서 NAB 가 제안한 ATSC 3.0 전면 전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업계 연합은 자발적(시장 기반)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FCC 에 "비용 · 시장현실 · 기술혁신 · 시민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도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

14) https://www.tvtechnology.com/news/broadcasters-urge-fcc-to-hit-the-delete-button-on- antiquated-regs
15) 북미주파수연합에는 Sennheiser, FOX Sports, NFL, MLB, Wisycom, CP Communications, PSSI, ATSC 등 방송 장비·스포츠·콘텐츠 업체가 참여함.
16) https://www.tvtechnology.com/news/north-american-spectrum-alliance-urges-fcc-to-protect-spectrum-for-production-and-distribution
17) https://www.newscaststudio.com/2025/07/07/six-industry-groups-tell-fcc-to-reject-nabs-atsc-3-0-transition-plan/

단체	주요 입장
소비자 기술협회 (CTA)	- ATSC 3.0 전환은 시장 자율로 해야 하며 강제 의무화 시 소비자 부담·혁신 저해·불필요한 규제 발생 우려가 있음 - ATSC 3.0 수신기 탑재 TV는 ATSC 1.0 전용 TV 대비 평균 $157 더 비쌈 - 소수의 필요 때문에 전체 가전비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함
공공지식 (Public Knowledge)	- ATSC 3.0 기기 개발/인증(A3SA) 과정의 불투명성 및 과도한 진입 장벽 - 오픈소스·스타트업·학계 등 혁신 주체가 배제되어 기술 경쟁의 약화 우려
인터넷&TV 협회 (NCTA), 미국통신협회 (ACA Connects)	- 유료방송(MVPD) 사업자는 ATSC 3.0 신호 송출 시스템 구축/통합에 수백만~수천만 달러추가 부담 발생 - 중소 케이블 사업자는 사업 포기, 소규모 시장에서 서비스 단절 우려 - 명확한 소비자 수요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 의무 부과 금지
미국 TV 협회 (ATVA)	- 방송사가 ATSC 3.0 도입 뒤 스펙트럼의 95%를 "비방송(데이터 등)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게 요구. 전체 방송 체계의 공공 서비스 성격을 저해
저전력방송협회	- ATSC 3.0 강제 전환을 명확히 반대함. 전체 시설 투자 능력 및 수익기반이 취약하여 의무화 시 정부·풀파워 방송국이 비용 부담해야 함. 여러 방송 규격(ATSC 1.0/3.0/5G)의 동시 허용을 지지

| 표 2 | NAB ATSC 3.0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

출처 : NCS(2025.7.7.).

2025.7.7. NAB, NextGenTV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18)]

구분	FAST 채널 (무료 광고 지원 스트리밍 TV)	NextGenTV (ATSC 3.0, 차세대 방송)
수신방식	인터넷 기반(스트리밍, VOD, 라이브 포함)	지상파 OTA(Over the Air) 방송+IP 결합
진입장벽	스마트 TV, 모바일 등 인터넷 연결만 필요	ATSC 3.0 튜너 내장 TV/수신기 필요
접근성	다양한 디바이스(스마트 TV, 모바일, PC 등)	TV/수신기에 한정(모바일은 일부 제공)
주요 콘텐츠	다양한 케이블/전문 채널, VOD, 글로벌 콘텐츠	지역방송·뉴스, 정규 채널, 긴급재난정보
해상도/기술	FHD~4K (플랫폼별 상이)	최대 4K UHD, HDR, 120fps, 몰입형 오디오
특징	무료, 광고 기반, 큐레이션 채널, 시청기록 개인화	무료(광고 또는 공영), 향상된 재난 방송, 양방향 기능, 맞춤형 광고
광고모델	타깃 광고, 실시간 노출수 집계·분석 강점	지역광고 및 방송광고 중심, 일부 타깃 광고 가능
시청행태	온디맨드+큐레이션 스트림/멀티스크린 편리	라이브 지상파 중심 (녹화, VOD 점진적 지원)
성장동인	구독 피로 시대의 무료 서비스 선호, 다양한 콘텐츠	4K 등 방송 품질 혁신, 공공성(재난/지역정보), 유료방송 대체
단점/과제	망 품질 의존, 데이터 소모, 방송재난 서비스 한계	장비 교체 부담, 활성화 저조, 전환 비용, DRM 이슈
미래성장성	글로벌→미국 주도, 유연한 확장성, K 콘텐츠 전파에 강점	정책 의존, 시장 성장 더딤, 공익성·로컬성은 강점

| 표 3 | FAST와 NextGenTV 비교

출처: K Entertech Hub(2025.7.19.).

18) https://www.newscaststudio.com/2025/07/07/six-industry-groups-tell-fcc-to-reject-nabs-atsc-3-0-transition-plan/

- NAB 는 6 월 27 일 6 개 산업단체가 낸 비판에 대해 "무조건적 시장 자유가 아니라, 미래 방송 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합리적 전환 기준이 필요하다"며, ATSC 3.0 의 의무적 전환 정책이 방송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전체에 미칠 혁신적 효과를 재차 부각함[19)]
- 결국 FAST 와 NextGenTV 의 미래 TV 주도권 전쟁으로도 볼 수 있음[20)]

2025.7.1. 소유제한 면제[21)]

- FCC 는 3 월 Gray 의 미네소타의 KXLT, 7 월 Sinclair 의 린콘에 방송국 판매 등 주요 그룹에 소유제한 관련 면제(waiver)를 부여함
- Gray Television 과 E.W. Scripps 가 WSYM (Fox) 등 5 개 시장에서 방송국을 맞교환[22)]
- 향후 네트워크 본사(ABC, NBC, CBS, FOX 등)는 지역 계열국(affiliate) 인수로 전국적 스케줄, 프롤로그 뉴스, 프라임타임 주도권, 광고(특히 정치광고)·스포츠 권리 확보에 유리하며, OTA·스트리밍 통합 유통 채널 확보 등 직접 플랫폼 전략을 강화할 것이고, 대형 방송그룹(Nexstar, Sinclair, Gray, Scripps, Tegna 등)은 기존 규모 확대, 시너지 및 효율성 극대화, 경쟁사 매수 등으로 시장구조 재편 노릴 것임[23)]

2025.7.16. Pearl TV, TV 제조사의 ATSC 3.0 튜터 의무 설치 반대는 이해상충 주장

- 미국 전체 지상파 방송국의 76%를 차지하는 연합체 Pearl TV 는 FCC 에 공식 제출한 의견에서 "CTA 회원사(주요 TV 제조사)들이 더는 단순 TV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사 FAST 채널(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을 통해 방송사들과 광고주·시청자 유치 경쟁을 직접 벌이고 있다"고 비판함[24)]

구분	방송사/방송협회 (NAB, Pearl TV 등)	TV 제조사/CTA (FAST 채널 사업자)
주장	신형 TV ATSC 3.0 튜너 의무화	의무화 반대, 주파수 사용료 부과 위협
논거	무료 OTA·공공성·혁신 vs 광고·시청자 점유 경쟁관계 인식	자사 FAST 채널 사업 이해와 방송 경쟁 구조

| 표 4 | ATSC 3.0 튜너 설치에 대한 방송계 대 제조사 입장

출처 : Policyband(2025.7.16.).

19) https://www.newscaststudio.com/2025/07/07/six-industry-groups-tell-fcc-to-reject-nabs-atsc-3-0-transition-plan/
20) https://www.kentertechhub.com/tvjeonjaeng/
21) https://tvnewscheck.com/business/article/whos-really-a-buyer-and-whos-a-seller-once-deregulation-comes/
22) https://scripps.com/press-releases/gray-media-and-scripps-agree-to-swap-television-stations/
23) https://tvnewscheck.com/business/article/whos-really-a-buyer-and-whos-a-seller-once-deregulation-comes/
24) https://www.policyband.com/p/dc-memo-pearl-tv-claims-tv-set-makers

2025.7.17. NAB 회장, FCC 위원에 촉구

- NAB CEO 커티스 르게이트(Curtis LeGeyt)가 FCC 위원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및 FCC 핵심 참모들과 면담을 갖고 방송 소유 규제 완전 개혁과 ATSC 3.0 로의 전국적 신속 전환을 강력히 촉구함[25)]

2025.7.31. 50 개 주 방송사협회, ATSC 3.0 전환 촉구

- FCC 에게 ATSC 3.0 의 완전 전환과 전국적인 전환 일정과 함께 기존 ATSC 1.0 방송 종료 날짜를 확정하도록 촉구함
- 미국 전역 약 1,766 개의 풀파워 TV 방송국이 존재하며, 2016 년부터 80 개 이상 대도시 시장에서 ATSC 3.0 방송을 시작해 인구의 75% 이상에게 도달 중임[26)]

2025.7.19. TV 제조사의 FAST 에 대한 논쟁

- Pearl TV 등 방송업계는 FCC 에 TV 제조사(CTA 회원사)는 이제 하드웨어뿐 아니라 FAST 등 자체 서비스도 보유하고, OTT 광고·시청 점유율을 방송사와 직접 경쟁한다며 “ATSC 3.0 튜너 의무화”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주장함
- TV 제조사도 자신들의 FAST 채널·플랫폼에서 직접 광고 수익을 창출하므로 ATSC 3.0 채용 의무화 저항이 불가피하고, 정작 기술 의무화로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방송업계가 정부 로비를 통한 시장 개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함[27)]
- 원 미디어(ONE Media) 최고 기술책임자를 역임한 제럴드 피츠(Jerald Fritz)는 방송사와 TV 제조사가 ATSC 3.0 전환에 공동 이익이 있으며, 대립이 아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28)]

2025.8.18. ATA, ATSC 채택은 너무 부담이 크다고 주장

- 디렉 TV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텔레비전 연합(ATA, American Television Alliance)은 FCC 에 제출한 서한에서 기존 디렉 TV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수백만 대의 셋톱박스가 ATSC 3.0 신호 수신이 불가해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므로 비용(약 1,500 만 달러)이 부담된다고 우려를 표함
- 위성 사업 구조 특성상, ”스팟빔(spot beams)“ 방식으로 미국 각 시장별 로컬 채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ATSC 1.0 신호만 처리 가능하고, ATSC 3.0 까지 추가하면 주파수·전송용량도 부족함[29)]

---

25) https://www.tvtechnology.com/news/nab-ceo-legeyt-discusses-ownership-regs-3-0-transition-with-fcc-commissioner-trusty
26) https://www.tvtechnology.com/news/50-state-broadcasting-associations-pass-resolution-supporting-atsc-sunset
27) https://www.tvtechnology.com/news/cta-blasts-pearl-tvs-conflict-of-interest-claims-on-nextgen-tv-tuner-mandates
28) https://www.tvtechnology.com/news/jerald-fritz-broadcasters-and-manufacturers-need-to-be-aligned-on-3-0-transition
29) https://www.advanced-television.com/2025/08/18/ata-adopting-atsc-3-0-is-too-expensive/

2 비판적 입장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된 콘텐츠 증가 가능

- FCC 의 지역 방송 규제 완화에 대해 방송사들은 "규제 완화가 지역 뉴스에 투자해 저널리즘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소유 집중이 지역성 약화, 뉴스 몰개성화, 편집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큼[30]
- 실제로는 지역성 강화보다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음. 그 예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송국을 소유한 Nexstar 는 최근 전국 산하 방송국에 '필수 편성(must-run)' 콘텐츠 방영을 지시함. 또한, 2018 년 Sinclair 그룹도 전국 앵커들에게 똑같은 대본을 읽게 해서 논란이 됨[31]

FCC, "방송 네트워크는 부패한 미디어 카르텔" 이라고 비판

- FCC 나탄 시밍턴(Nathan Simington) 위원과 비서실장 개빈 왁스(Gavin Wax)가, CBS 등 방송 네트워크를 '부패한 미디어 카르텔'로 비판하는 강경 논평을 발표
- 네트워크 구조가 ▲지역성 약화 ▲지역 기자·기상캐스터·제작자 등에 대한 투자 감소 ▲비싼 케이블 요금의 전가(시청자 부담 증가)까지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주장
- FCC 가 ▲방송 네트워크의 '역송신 수수료(reverse retransmission fees)'[32]에 대한 30% 상한제 도입과 ▲지역 방송 보호, ▲시청자 부담 완화 등을 촉구

직영과 제휴사의 차이

- 소유 제한이 완화되면 네트워크 직영(Owned & Operated, O&O) 방송국과 제휴사(affiliate)의 미래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음
- O&O 방송국은 ABC, NBC, CBS, FOX 등 주요 네트워크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방송국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대형 네트워크의 전국 전략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수직 계열화가 가속되며, 네트워크 단위 중심의 전국 광고·스트리밍 유니버스 확장될 수 있음
- 제휴사는 Nexstar, Sinclair, Gray 등 비네트워크 대기업·중소사업자가 네트워크와 제휴(프랜차이즈)하는 형태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디지털 시장 변화, 더 치열해진 인수·합병 경쟁, 네트워크의 로컬 자산 탈환 움직임 등 이중·삼중의 압력에 처할 수 있음[33]
- CBS 계열사들은 7 월 16 일 Paramount-Skydance 합병 승인 조건에 지역 방송국의 재정·편성 자율성, vMVPD 협상 권한, 로컬 뉴스 보호 항목을 포함해줄 것을 FCC 에 강력히 요청했는데, 방송 네트워크와 소속 방송국 간 수익 구조와 공공성, 지역성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 업계의 주요 쟁점과 직결되는 사항임[34]

---

30) https://www.tvtechnology.com/news/sinclair-urges-fcc-to-abolish-station-ownership-rules-sunset-atsc-1-0
31) https://www.tvrev.com/news/broadcasters-deregulation-boost-local-news-content-otherwise
32) 미국 주요 방송 네트워크(예: Paramount Global 소속 CBS)는 지역 방송국에 자신들의 콘텐츠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역송신 수수료'를 요구함.
33) https://www.tvrev.com/news/fcc-ownership-rules-loosen-divergent-futures-local-tv-stations
34) https://www.tvtechnology.com/news/cbs-affiliates-urge-fcc-to-impose-paramount-merger-conditions-that-strengthen-local-stations

5G 채택 주장

- 일부에서는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ATSC 3.0 보다 5G Broadcast 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
- 5G 방송은 3GPP(전 세계 이동통신 표준)에 포함되어, 전 세계 수억 대의 5G 스마트폰·태블릿이 추가 하드웨어 없이 직접 수신할 수 있어 모바일 시장을 즉시 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현재 5G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소비자용 스마트폰은 없는 한계가 있음[35)]

3 FCC의 대응

FCC 브렌단 카(Brendan Carr) 위원장의 개혁 의지

- 2025 년 5 월, 카 위원장은 미국 방송국에 적용되는 소유 한도(ownership caps) 규제를 “낡고 인위적(arcane and artificial)”이라 규정하며, “로컬 방송국들이 빅테크 및 스트리밍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소유 규제 폐지가 로컬 방송사의 경쟁력 강화와 전국 방송 네트워크(ABC, CBS, NBC, FOX 등)에 대한 힘의 균형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운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36)]

C-SPAN 의무 중계 요구

- C-SPAN 은 미국 정치·정부를 무편집, 논평 없이 생중계하는 유일무이한 공익채널임
- 디지털 전환, 케이블 해지(코드커팅) 가속화로 C-SPAN 의 시청자 수는 2013 년 1 억 가구에서 2025 년 5,100 만 가구로 급락하고, 주요 스트리밍/가상 MVPD(YouTube TV, Hulu + Live TV 등)는 광고·수익성 문제로 C-SPAN 송출을 거부하여 공적 접근권이 약화됨
- 방송사가 ATSC 3.0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채널, 서비스 공간에 C-SPAN 을 의무 편성(또는 인센티브 부여)하면 공공성 의무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임[37)]

35) https://www.tvtechnology.com/opinion/point-5g-broadcast-connects-stations-to-the-mobile-future
36) https://www.tvtechnology.com/news/fccs-carr-calls-station-ownership-caps-arcane-and-artificial
37) https://www.tvrev.com/news/in-the-public-interest-why-broadcasters-should-carry-c-span

Ⅲ. ATSC 1.0에서 ATSC 3.0으로

순서

1. ATSC
2. ATSC3.0 기반 서비스
3. ATSC3.0의 2030년 전환에 대한 전망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ATSC

ATSC 의 역사 : 한국 최초 본방송 시작

- 2016 년 1 월 17 일 KBS 가 유럽식 표준인 DVB-T2(남산)와 미국식 표준인 ATSC 3.0 (관악산송신소) UHD 방송 실험에 성공하고, 이어서 1 월 20 일에 LG 전자, SBS, MB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공동으로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와 관악산송신소에서 ATSC 3.0 실시간 송수신에 성공함[38)]
- 이후 2017 년 5 월 31 일 국내 지상파방송 3 사(KBS, MBC, SBS)는 KBS1, KBS2 MBC, SBS UHD 4 채널에 대한 지상파 UHD 방송을 ATSC 3.0 방식으로 실시함[39)]

ATSC 1.0 ~ 3.0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Inc.)는 1982 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NTSC 아날로그 방송을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비영리 기구임. 현재 차세대 방송표준인 ATSC 3.0 을 통해 TV 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음[40)]
- ATSC 1.0 은 1996 년 개발된 최초의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으로 고화질 텔레비전과 방송 서라운드 사운드의 혁명을 선도했음.[41)] 2009 년 미국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나, 모바일 환경에서 수신 감도가 낮아 양방향 서비스가 불가능함[42)]
- ATSC 2.0 은 2010 년 초반 제안된 고정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의 최상위 사양임.[43)] H.264(AVC) 비디오 압축을 사용하고 인터넷 연계 기능이 추가되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나 ATSC 3.0 이 등장하며 대중적으로 도입되지 않음[44)]

38) https://www.etnews.com/20160120000363
39) https://www.yna.co.kr/view/AKR20170531198100033
40) https://www.atsc.org/about/
41) https://www.atsc.org/documents/atsc-1-0-standards/
42) https://velog.io/@agnusdei1207/ATSC
43) https://www.atsc.org/atsc-documents/a1072015-atsc-2-0-standard/
44) https://velog.io/@agnusdei1207/ATSC

- ATSC 3.0 은 2017 년 표준이 확정되고 2020 년대부터 본격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IP(Internet Protocol)기반의 지상파 방송 시스템임. 기존 전송방식에 비해 개인형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 4K UHD 및 8K 의 고해상도와 5.1 채널 이상 오디오 지원, 방송망과 인터넷망의 동시 활용하여 스마트폰차량, 멀티뷰와 멀티스크린의 재생, 재난정보를 음성과 문자 발송 등을 할 수 있음.[45]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어떤 서비스든 송출이 가능하여 B2X(Broadcast to Everything)로 불림.[46] BIA Kelsey 의 2021 연구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서 3.0 기반 신규 매출은 연 64 억~150 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107 억 달러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전망함[47]

표준	사용 지역	변조 방식	최대 해상도	비디오 코덱	모바일 수신
NTSC(아날로그)	미국, 일본, 한국(과거)	AM, FM	480i		X
ATSC 1.0	미국, 한국, 캐나다	8VSB	1080i	MPEG-2	X
ATSC 3.0	미국, 한국(현재)	OFDM	4K UHD (8K 가능)	HEVC(H.265)	O
DVB-T	유럽, 호주	COFDM	1080i	MPEG-2, H.264	O
ISDB-T	일본, 브라질, 남미 일부	BST-OFDM	1080i	MPEG-2, H.264	O

| 표 5 | 방송 표준 비교

출처 : https://velog.io/@agnusdei1207/AT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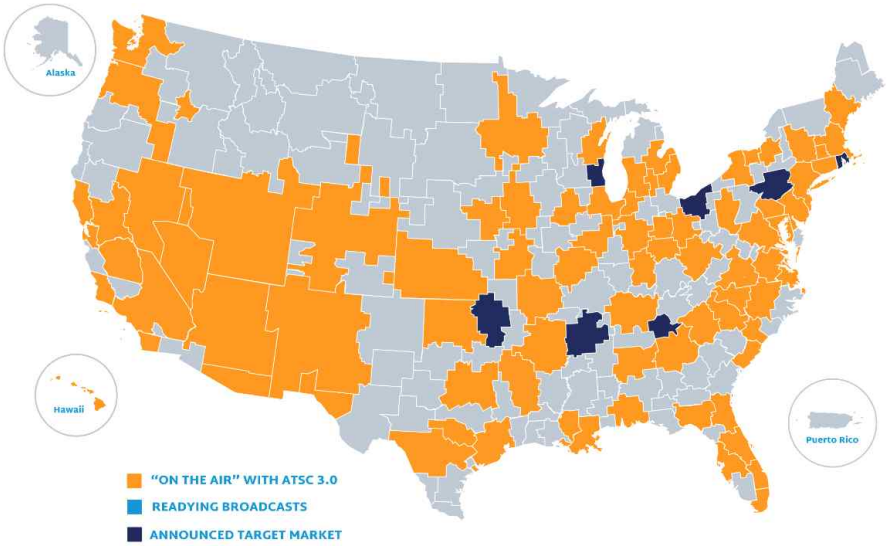
미국 ATSC 도입 현황

- 2009 년 NTSC 아날로그 방송 종료, ATSC 1.0 전국 도입
- 2020 년부터 ATSC 3.0 상용화, NextGenTV 브랜드로 확산 중
- 주요 방송사(FOX, NBC, CBS 등) ATSC 3.0 채널 제공[48]

ATSC 3.0 현황[49]

- 미국 내 80 개 시장에서 NextGenTV 방송이 활발히 송출되고 있고, 미국 전체 TV 가구의 약 76.6%를 커버하는 수준임. 103 개의 호스트 방송국을 통해 총 437 개의 NextGenTV 채널이 운영 중이며, 상위 20 개 주요 시장 중 19 개 시장에서 이미 방송을 시작함
- CTA 의 2025 년 1 월 예측 자료에 따르면, NextGenTV 튜너를 탑재한 TV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9 년경 연간 전체 TV 출하량(약 4 천만 대)의 약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45) 양현구, 류영선, 임영권, 황성희. (2015). 차세대 미주 방송 표준(ATSC 3.0)의 서비스 및 전송 기술. 방송과 미디어, 20(4), 46.
46) https://www.tvtechnology.com/opinion/without-victory-there-is-no-survival
47) https://www.tvtechnology.com/news/nexstar-pitches-reach-m-and-a-deregulation-and-nextgen-tv-opportunities-to-investors
48) https://velog.io/@agnusdei1207/ATSC
49) journal.kobeta.com/기고-atsc-3-0-글로벌-확산과-dtv-방송-종료/



|그림 2| 미국 NextGenTV 방송 현황

출처 : https://www.atsc.org/nextgen-tv/deployments/

ATSC 3.0 의 활용[50)]

- LG, 삼성, Sony 등에서 ATSC 3.0 지원 스마트 TV 출시
- 모바일 기기에서 ATSC 3.0 신호 직접 수신 가능
- ATSC 3.0 기반 차량용 TV 및 자율주행차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5G 통신과 결합하여 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활용 가능
-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방송 서비스와 결합 가능

ATSC 3.0 전환[51)]

- DTV 전환은 의회와 FCC 의 명령에 의해 의무적(Mandated)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ATSC 3.0 전환은 법적으로 자발적(Voluntary)인 방식임
- 2023 년 4 월 NAB Show 에서 FCC 제시카 로젠워슬(Jessica Rosenworcel) 의장은 'Future of TV (FOTV) Initiative'의 출범을 발표함. 2023 년 6 월부터 2024 년 7 월까지 FCC 담당자를 포함한 약 35~40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3 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2025 년 1 월 최종 보고서를 FCC 에 제출함
- 이 보고서는 NAB 가 FCC 에 제출한 규제 철폐 제안서(Petition for Rulemaking)의 중요한 기초가 됨. 결론은 ATSC 1.0 이 새로운 기능 도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TSC 3.0 의 신속한 도입과 자발적 전환에서 의무적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함

50) https://nebraskapublicmedia.org/documents/377/NPMs_ATSC_3.0_virtual_channel_for_Omaha_FAQ_v6.pdf
51) https://velog.io/@agnusdei1207/ATSC

2 ATSC3.0 기반 서비스

전국단위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 상용화[52)]

- 2025 년 1 월 E.W. Scripps(76 개 DMA), Sinclair(85 개), Gray Media(113 개), Nexstar Media Group(116 개) 등 미국 4 대 방송 그룹이 합작한 신규 벤처인 엣지빔 와이어리스(EdgeBeam Wireless) 설립함. 4 개 방송 그룹의 커버리지는 미국 전체의 90% 이상, 현재 76%의 닐슨 가구가 NextGenTV 신호로 도달 가능함

|그림 3| EdgeBeam Wiress 구성

- 목표는 ATSC 3.0(NextGenTV) 기반 전국 단위 데이터캐스팅(datacasting) 서비스 상용화임
- BitPath(신호 대역 동맹)와 OTA Wireless 등 기존 데이터 프로젝트와 고객 네트워크를 통합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여 시작 단계부터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갖춤
- 컨설팅 회사 BIA 의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캐스팅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업계 전체 연 매출은 2030 년 64 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음

네브라스카 공영방송의 무료 'BEST(Broadcast-Enabled Streaming TV)' 버추얼 채널[53)]

- 전통적인 방송(OTA)과 인터넷 스트리밍(OTT)의 장점을 결합해, 시청자가 스마트 TV 에서 방송 채널처럼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주문형 콘텐츠, 라디오 스트림,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부 QR 코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 기존 방송사의 데이터 채널 용량을 활용해 프로그램 가이드 등은 OTA 로, 실제 영상·음성 등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식임
- 버추얼 채널은 RUN3TV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방송국이 OTA 와 OTT 를 통합한 인터페이스와 서비스(예: 실시간 날씨, 의회 중계, VOD, 라디오 등)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오마하, 내슈빌, 리노 등 일부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가구의 약 76%가 NextGenTV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 방송국이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나 OTT 와 유사한 경험을 시청자에게 제공이 가능함

52) https://www.tvtechnology.com/news/edgebeam-wireless-atsc-3-0-datacasting-hits-the-ground-running
53) https://www.tvtechnology.com/news/nextgen-tv-virtual-channels-combine-the-best-of-ota-ott

- NBC 유니버설 등 일부 방송사는 NextGenTV 를 통해 4K HDR, 실시간 되감기, 맞춤형 뉴스·날씨, 온디맨드 콘텐츠 등 스트리밍 수준의 기능을 OTA 채널에 적용하기 시작함
- NextGenTV 버추얼 채널은 전통 방송의 신뢰성과 도달력, OTT 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결합해, 시청자 경험을 혁신하고 있고, 방송국은 기존 OTA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OTT 수준의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데이터 기반 광고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FCC 의 BPS(Broadcast Positioning System) 기술 지원[54]

- BPS 는 미국 내 TV 방송국들이 구축·운영하는 ATSC 3.0 기반의 위치·내비게이션·타이밍(PNT) 서비스로, 국가 기반시설과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기존 GPS 위성 서비스의 백업 및 보완용으로 개발됨. 2025 NAB 에서 FCC 가 BPS 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BPS 는 GPS·인터넷·모바일망 없이도 단독으로 동작하며, 위성 시스템 장애 시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또한, 방송업계의 역할 고도화(수익 다각화)와 더불어 국가 인프라 보호, 비상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대표적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례임
- 전국적 방송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이미 75%의 미국 가정이 NextGenTV 의 신호 수신 범위에 있음

화웨이 칩셋의 암호화 문제

- 인기 TV 수신기 제조사 실리콘더스트(SiliconDust)의 HDHomeRun Flex 기기가 일부 ATSC 3.0 방송(특히 A3SA 암호화 적용된 콘텐츠)을 재생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Pearl TV(대형 방송사 연합체)가 FCC 에 공식 이의를 제기함
- Pearl TV 는 HDHomeRun Flex 기기 내부의 HiSilicon 칩셋(화웨이 자회사)이 "보안 인증 문제로 ATSC 3.0 암호 해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ATSC 1.0(구방식) 방송의 동시 송출이 유지되는 한, HDHomeRun 등은 암호화 된 3.0 채널은 볼 수 없으나, 1.0 방송 대체 시청은 가능함[55]

D2M(Direct-to-Mobil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 인도에서 NextGenTV 의 D2M 기술을 활용한 초저가 스마트폰/피처폰이 발표됨
- LTE/5G 등 인터넷망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TV, 비디오, 오디오, 긴급 알림, 텍스트 메시지, 교육, 스포츠 등을 직접 수신 가능하여 본격적 확산 시 미국 등 에서도 확산 가능함. '보급형·저가' 폰에서 NextGenTV 수신 기능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큼[56]

54) https://www.nab.org/bps/
55) https://www.tvtechnology.com/news/pearl-tv-tells-fcc-huawei-chipset-reason-for-inability-to-decrypt-3-0-programming
56) https://www.tvtechnology.com/news/nextgen-tv-sinclair-applauds-new-atsc-3-0-d2m-phones

3 ATSC3.0의 2030년 전환에 대한 전망

- 최근 FCC 가 공식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주요 방송 그룹이 합작한 데이터캐스팅 신사업 '엣지빔 와이어리스'가 진전을 보이고, 방송위치측정(BPS)이 현장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NextGen TV 의 미래에 긍정적임
- 소비자기술협회(CTA), 저전력 방송사, MVPD(유료채널 사업자) 등은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 ▲소비자 부담 증가(호환 안 되는 기기 교체) ▲과도기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현실적으로 시행착오는 예상되나, 점차 NextGenTV 의 이점이 방송사·시청자·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을 것임[57]
- DMA 재편

|그림 4| 미국 남중부 DMA

출처 : TVREV(2025.7.10.)

57) https://www.tvtechnology.com/opinion/april-brings-good-omens-for-atsc-3-0s-future

- 닐슨의 DMA(Designated Market Area) 시스템은 1950 년대 아날로그 방송 시절부터 미국 지역 TV 시장과 광고, FCC 의 규제정책의 근간임. DMA 는 각 카운티를 방송 신호 도달 범위 및 시청 습관에 따라 TV 시장으로 분할한 구역으로 미국에는 210 개의 DMA 가 존재함
- 이 시스템은 케이블 이전, 지붕 안테나 중심의 시청 환경에서는 실질적이었으나, 현재 디지털·스트리밍·모바일·타깃 광고 시대에는 노후화되었고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그림 4〉에서 보듯이 강, 타임존, 주 경계가 선택적임
- 많은 소도시와 교외 지역이 '타지'의 대도시 방송 DMA 에 포함돼, 실제 지역성이 반영된 뉴스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 방송사는 여전히 DMA 단위로 광고를 묶어 판매하고, FCC 규제는 DMA 를 기준으로 주요 정책(예: 재송신 동의, 머스트캐리, 소유 한도, 지역성 의무 등)을 설계하고, 광고주는 특정 커뮤니티(예: 교외 히스패닉 가구)에 타기팅하고 싶어도 DMA 전체 단위로밖에 사고팔 수 없어 비효율이 발생함
- ATSC 3.0 이 도입되면, 우편번호(ZIP Code), 동네, 실제 이동·행동데이터, 시청자 행태 등 현실 기반의 미디어 시장 지도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고, ATSC 3.0 의 IP 플랫폼 및 정밀 타겟팅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정교하고 실효적인 로컬 서비스와 스마트 광고, 시민 참여가 가능해짐[58]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 싱클레어는 2025 년 7 월 27~30 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APCO(미국 공공안전통신관협회) 컨벤션에서 ATSC 3.0 TV 튜너와 안테나가 내장된 안드로이드 미디어 태블릿을 최초로 공개함
- 이는 와이파이, 셀룰러 망이 끊긴 상황에도 전파로 실시간 방송 및 비상경보(긴급알림) 수신이 가능함[59]

AI 중심의 미디어로 전환

- ATSC 3.0 이 되면 방송도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음. 실시간 시청자에 대한 AI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최적화된 콘텐츠, 광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게 됨
- ATSC 3.0 은 방송이 AI 기반 미디어 세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교(bridge)"이자 이 시대의 생존과 진화를 좌우할 전략적 기회임[60]

FCC, ATSC 3.0 전환 방향 공지

- FCC 는 9 월 2 일 ATSC 3.0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고(Public Notice)를 발표함. 전국적으로 3.0 서비스 도입 방송국을 늘리고 시청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규정 일부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방송국들이 3.0 관련 신기술(인터랙티브, 하이퍼로컬, 개인화 등) 도입 시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함.

58) https://www.tvrev.com/news/its-time-to-rethink-the-dma-outdated-market-maps-are-undermining-the-future-of-local-tv
59) https://www.tvtechnology.com/news/sinclair-to-unveil-atsc-3-0-enabled-android-tablet-at-apco-2025
60) https://www.tvtechnology.com/opinion/strategic-transformation-atsc-3-0-as-the-bridge-between-broadcasting-and-ai-driven-media

- 주된 내용은 첫째, ATSC 3.0 방송국은 기본 채널만 ATSC 1.0으로 동시 송출(simulcast) 의무가 있고 하위 채널(multi channel)은 해당이 없음.
  둘째,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similar)' 요건도 기본 채널에만 적용되고 하위 채널·광고·프로모션·특화프로그램·고급 영상(개인화 등)에는 적용받지 않음.
  셋째, 95% 인구 도달률 규정도 기본 채널에만 적용됨.
  넷째, 저전력방송국(LPTV)과 중계국은 대형 방송국의 ATSC 1.0/3.0 신호 호스팅도 허용함.
- 현재 "유연한 전환 규정 해석"을 통해 자발적 3.0 서비스 확산을 중점 지원하는 단계이나, 향후 근본적 규정 변경(의무화/일몰 지정 등)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음.

Ⅳ. 저전력TV, 무료방송과 결별 선언

순서

1. 저전력 방송국의 역사적 전환
2. HC2의 핵심 제안 내용
3. 문제점
4. 싱클레어와 ATSC의 반대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저전력 방송국의 역사적 전환

- 저전력방송국(LPTV)은 Low-power television 의 약자로 소규모 지역 사회나 특정 지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임. 기존의 대형 방송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작은 지역이나 마을에 지역 밀착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목적으로 FCC 가 1982 년 도입한 개념임. 미국의 7,120 개의 허가받은 방송국 중에서 75%인 5,374 개가 LPTV 임.[61)]
- 2025 년 3 월, 미국 최대 LPTV 소유주인 HC2 Broadcasting Holdings 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250 개 저전력 방송국의 무료 공중파 방송 의무를 폐지하고 5G 브로드캐스트 기반 데이터 사업으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공식 제출함.
-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100 년 넘게 이어진 '무료 텔레비전(Over-The-Air, OTA)' 모델에 근본적 종말을 암시하는 역사적 사건임

2 HC2의 핵심 제안 내용

- 기존의 TV 신호 송출 대신, 저전력 방송국(LPTV)이 5G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각종 모바일 기기·IoT 에 직접 전송
- LPTV 가 보유한 6MHz 전 대역을 데이터 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최소 1 개 무료 SD 방송' 의무조차 완전히 폐지
- 경기장, 콘서트장 등 인구밀집 환경 이벤트 실시간 커버리지, 데이터 중계, 위성 연결 중계, 긴급재난 알림 등으로 활용
- 더 이상 "방송국 = 무료정보" 공식이 아닌, 이동통신 등 유료 데이터 서비스의 중계사업자·플랫폼화로 전환한다는 의미

61) https://www.xgn.network/lptv-tv-stations-and-5g-broadcast

3 문제점

- 농촌·저소득층 등 광범위한 계층이 '정보 접근권'을 상실할 수 있음
- 방송국이 더 이상 어젠다·뉴스·공익오락 제공자가 아니라, "상업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사업자로 전환됨
- 방송공공성·면허 제도의 근간(무료방송 의무, 공익성 심사 등)이 무력화됨
- ATSC 3.0도 데이터 서비스 및 유료화 기능(암호화·구독·맞춤 광고 등)을 확대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OTA + IP 융합' 모델을 지키나, HC2의 5G 전환 제안은 그마저도 완전히 폐기하는 파격적 시도임.

4 싱클레어와 ATSC의 반대

- 싱클레어는 HC2의 청원은 LPTV의 오랜 공공 서비스 임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며, 다른 방송 서비스에 유해한 전파 간섭(harmful interference)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현재 5G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이 없으며, ATSC 3.0 대비 성능이 열세라고 함
- ATSC는 현재의 5G 모바일 기기는 네트워크 구조, 주파수 대역, 대역폭 등 하드웨어가 방송 신호 수신에 부적합하고, 미국 주류 통신사업자(MNO)들이 방송기능(Broadcasting)을 상업적 서비스로 도입할 의사나 투자계획이 없다고 비판함[62)]

62) https://www.tvtechnology.com/news/sinclair-atsc-raise-concerns-about-5g-broadcasting-in-fcc-filings

V. 지상파TV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순서

1. 승리없이 생존할 수 없다
2. 리니어와 CTV의 융합
3. 소유 제한 완화에 따른 M&A 증가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지금까지 미국의 지상파TV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알아봤음. 현재의 주요 쟁점은 〈표 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소유 제한 개혁, ATSC 3.0 전환 및 튜너 탑재 등임. 미디어 지형은 다양한 주체들이 연관된 시장이므로 일방의 주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음. FCC는 2025년 기준 NAB의 전환 강제안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나, 방송사 내/외부의 입장 차와 사회적 파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른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쟁점	방송계 입장	시청자·제조사·타 사업자 입장
소유 제한 개혁	즉각 폐지·자유경쟁	지역성·공익 지키려면 유지 필요 주장
ATSC 3.0 전환 방식·시기	단계적 강제 전환 필요	완전 자율+수요기반 전환만 지지
3.0 튜너 탑재 의무화	신속 의무화 필요	소비자 부담 크다, 가격 인상 반대

| 표 6 | NAB 규제 개혁 요구와 이에 대한 입장

1 승리없이 생존할 수 없다(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 방송산업의 미래 전략을 윈스턴 처칠의 전쟁 연설의 문맥을 빌려, 방송사들이 테크 자이언트(빅테크), 디지털 플랫폼과 맞서 “생존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음
- 규제, 시장 환경, 미디어 기술이 모두 변한 시대에 방송사는 공공자원(스펙트럼)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위기 대응력을 강조함
- 페이스북, 구글 등 테크 플랫폼이 “공공을 위한 신뢰/책임”에서 자유롭지만, 방송은 공공의 신뢰와 공적 의무를 가진 존재임
- 방송산업의 미래 전략과 존재 가치는 ‘기술+공공성+지역성+적응력’ 네 가지 축임[63]

63) https://www.tvtechnology.com/opinion/without-victory-there-is-no-survival

2 리니어와 CTV의 융합

선형 TV 와 CTV 의 균형 공존

-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는 전통과 신생 미디어의 '근본적 재조정(Rewiring)'이 있음.[64]
- CTV 성장세의 완화는 "선형 TV 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서사와 달리, 데이터는 두 시장 모두 성장세 둔화와 공존 상태 지속을 보여줌
- 선형과 CTV 를 분리된 경쟁 구도 대신, 한 화면 내에서 통합된 '콘텐츠 탐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MVPD, 스마트 TV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핵심
- 시청자 중심의 유연성, 콘텐츠 탐색 혁신, 통합 데이터·AI 활용, 광고 효율화를 추구하는 '융합 가치 창출'이 중요함[65]

방송의 지속 노력

- Sinclair 그룹은 2025 년 광고주 대상 업프런트 행사에서 "Broadcast is back(방송의 부활)"을 내세우며, 미국 소비자들이 구독형 유료 TV 에서 이탈해 무료 방송·멀티캐스트 TV 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함
- 시의성 있는 콘텐츠 강화, 전국적 유통 채널 확대, 특별 팬 이벤트 등이 멀티캐스트 브랜드의 독자적 아이덴티티와 시청자 충성도를 높이고 있음[66]
- 방송사는 NextGenTV, FAST 등 신규 플랫폼과 기술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TV 의 강점과 디지털 확장성을 결합하여, 시청자·광고주 모두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 지위를 강화해야 함[67]

지역 방송의 확장

- CTV 는 지역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 기회임
- 신뢰, 스토리텔링, 시장 지식에 집중하면서, 디지털-CTV 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니즈를 맞춘다면, 지역방송국은 오히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 구시대적 모델(선형 TV 우선권)에 집착하지 말고, "크리에이티브 에이블러" 및 "지역 시장 전문가",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68]

쇼핑과의 연결

- TV·스트리밍 광고 시장은 기존 선형 TV 에서 CTV(커넥티드 TV)·OTT 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글로벌 CTV 광고 지출은 2023 년 205 억 달러에서 2028 년 412 억 달러로 두 배 성장할 전망임
- 광고주, 플랫폼, 방송사는 단순 광고 삽입을 넘어 실제 구매 전환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쇼핑 광고로 혁신을 모색중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ATSC 3.0 으로 전환해야 됨

---

64) https://www.tvrev.com/news/wir20250613
65) https://www.tvrev.com/news/beyond-platforms-unlocking-value-at-the-intersection-of-linear-and-connected-tv
66) https://thedesk.net/2025/05/sinclair-multicast-networks-upfront/?utm_source=chatgpt.com
67) Phil Kurz(2025.5.). Industry leaders tackle building audience with FAST, streaming and NextGen TV. tv tech summit. pp. 8-9.
68) https://www.tvrev.com/news/local-broadcasters-must-evolve-or-be-left-behind-in-the-ctv-revolution

- 52%의 미국 소비자는 TV/스트리밍 시청 중 광고와 직접 상호작용해 상품 주문, 상품 정보 확인, 콘텐츠 연계 상품 구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쇼퍼블 광고는 더 높은 참여도, 상세한 성과 측정, 직접적인 매출 전환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큼
- Roku·Fubo 등 일부 플랫폼은 이미 화면 내 클릭·쇼퍼블 일시정지 광고, 프랑스의 TF1 은 세분화 광고 타겟팅 등으로 시도를 확대 중임
- 심리스(seamlees)한 사용자 경험, 기술 통합, 데이터 중심의 측정·성과전환이 앞으로 업계의 중요한 경쟁축이 될 것임[69]

3 소유 제한 완화에 따른 M&A 증가

- **싱클레어는 7 월에 WDKA and KBSI 방송국의 비면허 자산을 인수하였음. 지역 방송 능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임,[70] 또한, 8 월에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방송 부문의 성장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평가하는 방송 사업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검토를 시작했음[71]**
- **최근 FCC 가 방송 소유 규정을 재검토함에 따라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84 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처럼 규제 완화 기대 속에서 방송국 인수·합병 거래가 증가할 것임.**

미국의 방송시장은 전체적으로 광고 수익은 감소세이나, 고연령 시청층·스포츠·뉴스 분야에서 방송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견고함.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 구독·광고 모델은 하이브리드로 진화하고,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번들·프리미엄 패키지·로컬 콘텐츠 등 유연한 수익구조에 주력하고 있음. FCC가 9월 2일 ATSC 3.0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나,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 방송산업의 규제·기술·시장 구조 전체의 향후 수년간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임. 실제로 8월 27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루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ATSC 3.0 기반의 DTV+ 시스템을 국가의 미래 텔레비전 표준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2026년 FIFA 월드컵 대회에 맞춰 시작될 예정임.[72]

69) https://tvnewscheck.com/tech/article/broadcasters-need-to-prepare-for-shoppability-heres-why/
70) https://www.tvtechnology.com/news/sinclair-acquires-non-licensed-assets-of-wdka-and-kbsi
71) https://www.tvtechnology.com/news/sinclair-launches-comprehensive-strategic-review-of-broadcast-businesses
72)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50827202017/en/Brazil-Officially-Adopts-ATSC-3.0-Technologies-for-its-Next-Generation-Television-System?utm_campaign=shareaholic

뉴욕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이양환 센터장	+1 201-518-6706	koccany@kocca.kr
이서희 대리	+1 347-464-2909	koccany@kocca.kr

미국(뉴욕)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5-1호

스트리밍(OTT) 시대를 맞이한 미국 지상파 TV의 패러다임 전환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이양환 (뉴욕비즈니스센터 센터장) 이서희 (뉴욕비즈니스센터 대리)
집필자	유건식 (KBS 국장급/前 KBS America 대표))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발행일	2025년 10월 28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